

# 11 칼빈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특징

정홍열 교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직신학



## 1. 시작하는 말

지금까지 칼빈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에 대한 논의는 주로 몇 가지 주제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기독교론에서 두 본성론을 중심으로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 삼중직론에 관련되어 어느 직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가 등이었다. 구원론으로 넘어와서는 성화와 칭의의 바뀐 순서에 대한 칼빈의 의도를 연구하는 가운데 “구원의 서정”이란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주로 선택론에 관련하여 이 중예정론이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였다. 이들 주제들 중,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은 성찬논쟁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임재방식에 따른 루터교와 개혁신학의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고, 삼중직론 등은 개혁신학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특정직을 선호하려는 신학적 관심에 따라

끊임없는 논쟁의 불씨가 이어져 왔다. 더욱이 선택론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작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어 온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들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으나 오히려 칼빈의 신학적 중심원리와 사상을 반영해 주는 그런 주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주제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칼빈의 신학을 오늘의 목회현장과 직접 연결해 주고자 시도하려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구상하고 저술하게 된 이유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신성한 신학을 지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의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의 전체를 포함하였고 또 그러한 순서대로 그것을 배열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만 하면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성경에 포함된 내용을 어떤 목표에 관련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곤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sup>1)</sup>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의 전체, 성경연구의 기본목적, 성경에 포함된 내용이 추구하는 목표 등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물론 우리는 이미 그의 의도를 잘 읽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칼빈의 더 구체적인 답변은 그가 1560년 「기독교 강요」 프랑수어판의 서문에서 소개한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난다. “구원의 교리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 결과로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이 일을

1) 존 칼빈, 「기독교 강요」(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15. 이하 *Inst.*로 표기. 이 논문에서는 생명의 말씀사의 「기독교 강요」와 함께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에서 출간한 「기독교 강요」도 함께 사용한다.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본서를 구성하려는 나의 계획이다.” 두 글에서 보듯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된 칼빈의 의도는 모두 구원론적 목표를 가진다. 칼빈의 용어로 표현하면 “죄인 구원과 하늘의 복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는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나 상아탑의 신학이 아니라,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기 위한 구원의 여정, 은혜의 유익과 영생을 소개해주는 신학이다.

## 2.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 안에서의 기독교론과 구원론

### 1)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주제들

(1) 「기독교 강요」 제Ⅱ권 :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서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 제12장 - 그리스도께서는 증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음.
- 제13장 -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의 참본질을 취하셨음.
- 제14장 - 증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룸.
- 제15장 -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등 그의 세 가지 직분을 보아야 함.
- 제16장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 제17장 -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를 위해 얻으셨다는 진술은 올바르고 적절함.

## (2) 「기독교 강요」 제Ⅲ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 그 유익과 효과

- 제1장 -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짐.
- 제2장 - 믿음 : 그 정의와 특성
- 제3장 -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회개
- 제4장 -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 : 복음의 순결성과는 전혀 다름 : 고해와 보속에 대한 논의
- 제6장 -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 제7장 -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 자기를 부인함.
- 제8장 - 십자가를 지는 일 : 자기 부인의 일부
- 제9장 - 영생에 대한 묵상
- 제10장 -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자세
- 제11장 -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 용어 정의와 문제의 요점
- 제12장 - 값없는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아야 함.
- 제13장 - 값없는 칭의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
- 제14장 -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
- 제15장 -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량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림.
- 제16장 - 칭의의 교리에 오명을 씌우기 위한 교황주의자들의 거짓 비난에 대한 반박
- 제17장 -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 제19장 - 그리스도인의 자유

- 제20장 - 기도
- 제21장 - 영원한 선택
- 제25장 - 최후의 부활

## 2)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내용

칼빈은 이미 「기독교 강요」 I 권 신론으로부터 자신의 구원론을 소개해 왔다. 예를 들어 「기독교 강요」 I 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에서 칼빈은 “인류가 이처럼 황폐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나 구원의 주인으로서나 어떤 식으로든 호감이 가는 분으로 체험하지를 못한다.”<sup>2)</sup>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제2권 그리스도의 인격(Ⅱ, 12-14), 삼중직(Ⅱ, 15),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Ⅱ, 16-17)에서 어느 정도 구원론의 내용을 깊이 있게 소개했다. 그런 다음 「기독교 강요」 Ⅲ권 1-9의 성화론과 11-19의 칭의론에서 그의 구원론이 결정적으로 소개되며 완성된다. 한편으로는 구원론을 다른 한편으로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 양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에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것(「기독교 강요」 Ⅱ 권)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성화와 동시에 칭의로 우리에게 전달되는(성화와 칭의론, 「기독교 강요」 Ⅲ 권)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황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Ⅲ권의 제목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짐”.

따라서 칼빈은 칭의론 그 자체를 설명하는 대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구원사건이 칭의론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신앙과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2) *Inst.*, I, 2, 1.

### 3. 칼빈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특징

#### 1) 구조적 특징

칼빈은 기독교론을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 인격(본성)과 사역으로 소개 하되, 사역론을 다시 직무론과 사역론으로 나누어 직무론에서는 삼중 직을, 사역론에서는 십자가(죽으심)와 부활과 승천으로 소개한다. 삼중 직의 배열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으로 소개하 듯이 그리스도의 사역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다룬다.

칼빈은 구원론에서 성화를 칭의보다 먼저 다룬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모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중은혜이므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일반적인 순서인 칭의를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성화를 먼저 다루는 특징을 보여 준다. 성화와 칭의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칼빈의 구원론은 선택(예정)과 부활로 맺게 된다. 칼빈은 예정론과 부활론을 우리의 구원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유익을 더욱 확고한 은혜로 소망하고 확신하도록 하는 교리로 소개한다.

구원론에 해당되는 「기독교 강요」 Ⅲ권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연합과 믿음), 둘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누리는 유익(성화와 칭의), 셋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효력(자유, 선택, 부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 2) 내용적 특징

「기독교 강요」 Ⅱ 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을 구속하기로 하신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증보자적 사역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의 구속임(「기독교 강요」 Ⅱ, 12, 4)을 밝히고 있다. 구원론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기독교 강요」 Ⅲ권 역시 제목에서부터 그의 주요한 관심이 구원론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독교 강요」 Ⅲ권의 제목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유익,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오는가” 하는 것으로 칼빈은 기독교 종교의 특징이 구원중심적임을 분명히 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을 소유하는 일이다. 칼빈의 신학에서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내용적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은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음으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을 알려 주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되듯이 그의 구원론에는 삼위일체론적 균형을 이룬 복음의 구조가 특징적이다.

### 4. 칼빈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신학적 특성

#### 1) 통합적 신학

필자는 칼빈의 신학이 지닌 통합(전)적 성격을 보면서 이 성격이 크게 세 부분에서 작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1) 삼위일체적 성격과 (2) 칼케돈의 두 본성의 관계를 말하는, 혼합되지 않으면서 구별된다는, 두 본성과 한 인격을 표현하는 공식과 (3) 시간의 동시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삼위일체적 성격이라 함은 여러 신학자들이 칼빈의 신학적 성향을 두고 신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 중심적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성령론적 강화가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들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으며 각각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칼빈의 신학에서 이 모든 특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결

코 어떤 한 가지 성격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며 적절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칼빈의 신학적 특성을 삼위일체적 통합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칼빈의 신학에서 삼위일체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그의 믿음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칼빈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에 계시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인 쳐진 것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칼빈은 이 짧은 진술 속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전체 신학의 균형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믿음을 소개해 준다.

파커는 칼빈의 신학이 지닌 삼위일체적 성격을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길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 중보자께서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목케 하셨다. 예수, 구주, 기름부음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셨다. 이것이 제2권의 요지였다. 그러나 2권이 끝날 때까지 이 주제가 다 다루지지 않았다. 방금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이 제3권의 제목에 사용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끼치는 열매들과,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

제3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중보자의 사역이 주제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 간의 불화가 어떻게 반전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제3권이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시오며’라는 구절에 해당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을 다 마치고 삼위일체의 제3위를 다루는 지점에 이르지 않았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은혜를 받는 방법(Mode)으로, 열매

3) *Inst.*, III, 2, 7.

와 효과를 내는 분으로 제목에 익명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훌륭한 삼위일체 신학이다.<sup>4)</sup>

전통적인 창조 타락 구원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칼빈의 신학, 특히 그의 구원의 복음에서 삼위일체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칼빈은 그의 신학 전반에 칼케돈의 두 본성 한 인격의 원리를 훌륭하게 적용시키며 이를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균형을 이루어야 할 주제들에 적절하게 효율적인 틀로 활용하였다. 이는 비단 기독교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구별을 하면서도 분리는 아니고 일치는 하면서도 혼합이 아니라는 칼케돈의 형식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일치나 구별이 전제되면서 통합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기독교신학의 설명의 틀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칼빈은 이 틀을 율법과 복음에도 적용하였고 구원론에서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을 역설하는 데에도 사용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동시에 성화시키시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sup>5)</sup>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이뤄진다고 해서 양자가 결코 동일시될 수는 없다. 양자는 반드시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만일 성화가 칭의를 대신하고자 하려 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선행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의 오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신앙이 없는 사랑은 윤리는 될지언정 구원의 길은 아닌 것이다. 신앙과 사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결코 동일시될 수는 없다. 반대로 칭의가 성화를 대신하게 된다면, 인간의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사랑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이다. 열매 없는 신앙은 공허한 소리

4) T. H. L. 파커, 박희석 역, 『칼빈신학입문』(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113.

5) *Inst.*, III, 16, 1.

에 불과할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칭의이고 성화는 성화이다. 그러면서 양자는 결코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연관된 모습이다. 칼빈은 철저하게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을 강조한다.<sup>6)</sup> 이러한 칼빈의 사상은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난다.

우리는 둘(칭의와 성화)을 구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  
……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sup>7)</sup>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성의 세 번째 원리로서 동시성이 등장한다. 통합성 내지 통전성을 시간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 ‘동시에’(simul) 만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한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통전성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으로 표현했듯이, 칼빈은 구원의 통합성을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으로 표현했다. 칭의와 성화는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을 수 없다. 칼빈이 말한 이중은혜가 두 단계의 은혜가 아닌 것은 바로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을 말해 주는 예이다.<sup>8)</sup>

## 2) 구원중심의 신학

칼빈의 신학은 전적으로 “구원”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놓고 모든 교리를 전개해 나가는 신학이다. 구원은 칼빈신학의 중심이며 동시에 신앙

6) 박성규, “칼빈과 바르트의 칭의와 성화 비교연구”, 2009년도 제1차 칼빈학회 정례발표회, 21.

7) *Inst.*, III, 16, 1.

8) 박성규, “칼빈과 바르트의 칭의와 성화 비교연구”, 20.

의 목표(*scopus fidei*)이다. 칼빈의 구원중심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유익”이라는 말로 소개된다. 「기독교 강요」의 기독교론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 그 유익과 효과”를 다루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인 셈이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취하고 유익을 누리며 영생을 알고, 그 영생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다.<sup>9)</sup>

지금까지 많은 칼빈학자들이 칼빈신학의 중심사상을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론” 혹은 “5대 강령” 등에 두어 왔으나 최근 한철하 박사는 그 무엇보다도 칼빈의 중심사상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한철하 박사에 따르면 “칼빈의 그리스도교 종교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구원론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 중심에서 추호라도 떠나서는 아니된다. 모든 사고와 내용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알파이시요 오메가이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의 종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강요」 I, II, III권의 제목과 그 개관에서 확인하였다.”<sup>10)</sup> 이러한 주장은 일견 당연한 듯이 보이나 실제로 칼빈의 중심사상이 구원임을 주장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칼빈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부를 특징 짓는 구원 중심신학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강요」 I 권은 죄의 실재성을 깨닫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 죄의 실재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 인간이 죄의 실재를 깨닫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되고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I 권은 하

9) *Inst.*, III, 2, 14.

10) 한철하, “칼빈 사역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7-18.

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기독교적 신앙의 실재를 제공한다. 죄에 대한 적나라한 체험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에 몸을 담글 수 없다.

「기독교 강요」Ⅱ권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다룬다. 즉, Ⅱ권의 내용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 대속의 형벌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락과 은혜로 부를 것을 말한다. 또한 Ⅱ권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그의 공의로운 죽음으로 채워져 있다.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다룬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다루고 부활을 말하며, 승천의 유익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논한다. 이 모든 것이 죄인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사악하고 타락한 영혼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사랑과 계획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를 행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제시해 준다.

「기독교 강요」Ⅲ권에서는 칼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죄인 된 인간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은혜의 유익과 효력을 다룬다. 다시 말해 Ⅲ권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로움을 전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말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유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중은혜의 사건이 기도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선택의 교리로 보증되고 확증된다. 마지막으로 Ⅲ권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 버

리는 최종적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종말론적 완성을 설명한다.

「기독교 강요」Ⅳ권에서 칼빈은 구원과 구원의 유익을 얻기 위한 은혜의 외적 수단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그의 「기독교 강요」가 구원이라는 성경의 중심 진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한다. 결국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 죄인 구원과 은혜의 유익이라는 신앙의 목표를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sup>11)</sup>

### 3) 연합교리의 결정적 위치

칼빈이 그의 신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를 꼽으라면 분명히 연합이라는 용어가 될 것이다. 이 용어는 그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에도 어김없이 즐겨 등장하고 있다. 칼빈은 먼저 「기독교 강요」 제Ⅱ권 제14장 “증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룸”이라는 장의 첫 항을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연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인간(전인)에게 적용되는 영혼과 육체의 연합관계를 유비로 제시한다. 영혼의 특성이 육체에 전해지고, 육체의 특성이 영혼에 전해지기도 하지만,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한 인격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두 가지 상이한 본질들이 이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sup>12)</sup>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두 본성은 혼합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sup>13)</sup>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본성에 있어서 연합의 이론을 제시했던 칼빈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도 삼중직을 논하는 가운데 삼중직에 연합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을 각각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11) 서재주, “유익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구원론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경기도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8), 41-43. 서재주 박사는 칼빈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끼치는 유익을 칼빈의 전체신학 안에서 규명하고 있다.

12) *Inst.*, II, 14, 1.

13) *Inst.*, II, 14, 4.



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참여는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준다. 만인제사장직의 근거로 세례를 제시했던 루터와 달리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참여, 특히 제사장직에 대한 참여는 곧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에 대한 근거가 된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연합하게 됨으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삼중직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시는데, 이는 영원한 화목의 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를 이 위대한 직분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받아들이시기 위함인 것이다(계 1:6). 우리들 자신은 더러우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값없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다.<sup>14)</sup>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직무론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 신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칼빈은 구원론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유익과 효력을 연합으로부터 이해하되 그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받게 되는 것은 이중은혜(*duplex gratia*)이다.<sup>15)</sup> 칼빈이 말하는 이중은혜란 칭의와 성화이다.

그러므로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가 소유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

14) *Inst.*, II, 15, 6.

15) *Inst.*, III, 11, 1.

스도가 소유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이다.<sup>16)</sup>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건 성화건 간에 구원의 결정적 은혜 혹은 화해의 결정적 계기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며 행하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용,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시어야 했다.”<sup>17)</sup>

칼빈은 이 화해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칭의와 성화를 한편으로는 기독론으로부터 철저하게 정초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론에 정위시킨다. 이러한 칼빈의 신학적 구상은 그의 성령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Ⅲ권의 처음부터 성령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줄(*vinculum*)로 소개한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은 성령으로서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칭의와 성화의 화해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다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전

16) *Inst.*, III, 1, 1.

17) *Inst.*, III, 1, 1.



1:30)”고 주장한다.<sup>18)</sup> 말하자면 그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거룩함을 향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접붙임은 단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자라는 비밀스런 연합까지 상징한다. 그러나 비록 칼빈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언급했다고 하지만 그 연합의 성격은 언제나 본질의 연합이 아니라 은사(Güter)의 연합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sup>19)</sup>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가져가듯이 결코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본질의 교환은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 안으로의 흡수를 의미하거나 혹은 인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리스도를 우리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어떤 신비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4) 변증적 신학

칼빈이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된 동기 자체가 변증적 이유였다는 점은 그의 헌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프랑스 왕 프랑수아에게 당시 박해 받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쏟아졌던 몇 가지 비난들, 즉 교리적 문제와 교회문제, 그리고 국가전복의 혐의 등에 대한 해명과 함께 오해를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변증하려는 목적에서 그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복음주의자들을 향해 진노

18) *Inst.*, III, 16, 1.

19) 칼빈은 오시안더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연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비판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연합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우리 안으로 주입됨으로 우리가 본질적 의를 누리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Inst.*, III, 11, 5, 6, 11).

를 품고 있던 왕의 마음을 돌리고자 칼빈은 이 책을 그에게 헌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기독교 강요」는 출발부터 변증서로 방향을 잡았다.

칼빈 당시 로마가톨릭 교회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교리는 칭의론이었다. 이는 종교개혁에 대한 로마가톨릭 교회의 대응 내지 반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종교개혁에 대해 소집된 트리엔트공의회(1545-1563)의 주요 주제가 바로 칭의론이었다는 사실은 로마가톨릭 교회가 구원론에 관련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얼마나 심각하게 반응했는지를 보여 주는 반증이 된다. 이에 대해 박성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칼빈의 칭의론은 무엇보다도 1547년에 열린 트리엔트 종교회의의 결정 가운데 *Sessio VI(Decretum de Justificatione)*과의 논쟁을 통해 성격 지어졌고, 그런 다음 로마서 강해 「로마서 주석」을 통해 종교개혁적 입장을 더욱 굳히게 되며, 종국에는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야 자신의 고유한 칭의론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론을 구성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트리엔트 종교회의의 반종교개혁적인 도전에 맞서 종교개혁적인 대답을 제시해야 했기에, 그의 구원론은 결국 논쟁신학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sup>20)</sup>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536년 초판의 발행으로부터 1559년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수정과 증보를 거듭해 왔다. 그의 「기독교 강요」의 초판에서는 성화론의 자리가 독립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칭의론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전통적 요리문답의 순서를 따르면서 후반부에 성례전에 해당되는 주제들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그리고 세상정치를 다루고 있는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칭의론이 십계명을 해설한 후에 두 부분에 걸쳐 등장한다. 26~32장과 다시

20) 박성규, “칼빈과 바르트의 칭의와 성화 비교연구”, 6.

34~38장에서 칭의론을 다룬다. 그 분량에 있어서나 비중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에서의 칭의론은 루터의 종교개혁신학적 전통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sup>21)</sup>

그러나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Ⅲ권 구원론에서는 트리엔트 종교회의의 공격에 답변하기 위해서 성화론을 칭의론 앞에 배열하면서 구원론의 내용을 믿음에 이어서 성화(그리스도인의 삶)로부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칼빈은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는 칼빈의 신학적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그가 결코 성화가 칭의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그의 신학적 관심이 성화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적 의도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칭의론에 여전히 있었으나 칭의론을 서술하기에 앞서 오히려 성화를 다룸으로 칭의론에 쏟아지는 일방적인 비판을 극복하고 신학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그의 신학적 판단의 결과였다. 성화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한 후, 칭의론을 소개하는 그의 진술은 그의 신학적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개략적으로 밖에는 다루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를 얻는데, 그 믿음에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는 그 선한 행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문제는 이 칭의의 문제와도 부분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칭의의 문제들을 철저히 다루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 칭의의 문제야말로 신앙을 떠받쳐 주는 주된 근거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sup>22)</sup>

이제 우리는 구원론에서 성화와 칭의를 다루는 칼빈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로마가톨릭 측이 퍼부었던 공격에 대해 종교개혁 진영의 구원론이 칭의의 일변도가 아니라 믿음과 선행을 충분히 고려한 칭의론에 있음을 역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종교개혁적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비난과 공격에 응답하고, 그러면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칼빈의 신학적 의도는 다시 하나님의 이중은혜의 성화와 칭의의 동시성으로 소급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결국 칼빈은 루터가 세워 놓은 칭의 교리 위에 성화 교리를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칭의에서 성화가 배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도 양자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보여 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롭게 살기 위한 신자의 행위는 규범적 행위가 아니라 당위적 행위, 다시 말해서 감사의 행위로 성화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 5. 맺는 말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불어판을 출간(1541)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스스로 자신의 책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것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감히 강조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굳게 확신할 수 있는데, 즉 이 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며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보면서 그의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음의 사건, 그 은혜의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사

21) 존 칼빈,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22) *Inst.*, III, 11, 1.

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빈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장해 온 사실을 우리는 반대로 너무 당연시한 까닭에 소홀히 한 점은 없었는지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칼빈은 신학자의 임무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I 권에서 이렇게 말한다: “신학자의 임무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화하는 데 있다.”<sup>23)</sup> 여기서 양심을 강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을 강화한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연구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신앙강화와 성도의 양심의 강화를 통해 구원의 확실한 진리 안에서 살고 자라나는 성도들을 배출하는 일에 더욱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수고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금 칼빈 자신의 말을 인용하면,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신학의 수고에 정진하는 이유이다. 칼빈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 선생님이 오늘의 후학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국교회와 사회는 많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앙과 이념과 지역과 빈부와 남북과 동서의 갈등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엡 2:14)의 화해의 복음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귀한 가르침을 칼빈으로부터 배우기를 소망한다.

23) *Inst.*, I, 14, 4.